

스티어링 휠이 차량 상태를 알려준다



▲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도 차량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핸들'이라 부르는 조향장치의 정확한 명칭은 '스티어링 휠(Steering Wheel)'이다. 이름 그대로 '조종하다',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지는 '스티어링(Steering)'에 '바퀴'라는 'Wheel'을 조합한 용어이다.

스티어링 휠은 많은 발전을 거쳐왔다. 그 중에서도 유압이나 모터의 힘을 빌려 보다 손쉽게 조작이 가능한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이 등장한 것과, 운전자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티어링 휠에 에어백을 장착한 것은 스티어링 휠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스티어링 휠은 차량을 조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차량과 노면의 상태를 운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스티어링 휠이 전하는 감각에 집중하면 내 차의 상태가 어찌될지 파악할 수 있다. 'PLAY KIA'가 스티어링 휠을 통해 알 수 있는 차량 상태에 대해 안내했다.

■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두둑 하는 소리가 난다면 엔진에서 발생한 힘을 바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속 조인트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 앞바퀴 차축의 양 끝에 회전과 조향 역할을 하는 조인트와 조인트의 윤활을 돕는 그리스(윤활유)가 채워진 고무 부츠가 있는데, 부츠가 찢어지면서 윤활 상태가 나빠지고 부츠 사이

로 이물질이 들어가 이상이 생기게 된다.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뚜두둑" 하는 소리가 난다면 등속 조인트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 조작감이 갑자기 무거워질 경우

지금은 전자식 스티어링 장치가 보편화돼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의 경우 엔진과 연결된 벨트로 작동되는 오일펌프의 유압으로 자동차 조향을 보조하는데, 오일의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유압 계통에 이상이 생기면 스티어링 휠의 조작감이 무거워져 조향이 무척 어려워진다.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모터의 이상으로 조작에 이질감이 커지거나 무게감이 커진다면 스티어링 계통을 점검해야 한다.

■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경우

주행 중이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량이 한 쪽 방향으로 기울거나 스티어링 휠이 흔들린다면 타이어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타이어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한쪽 타이어의 공기압이 빠진 경우 쏠림이나 핸들 떨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앞 타이어 공기압이 빠졌을 경우 쏠림 현상이, 뒤 타이어 공기압이 빠졌을 경우 흔들림 현상이 발생한다. 공기압이 갑자기 심하게 줄어 들었을 때에는 펌크가 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이어 리페어 키트나 비상용 타이어 등을 이용해 응급조치를 하거나 견인을 통해 차량을 바로 수리해야 한다.

■ 직진 주행이 잘 안되는 경우

만약 타이어 공기압은 정상인데도 쏠림 현상이나 규칙적인 주행 소음이 발생한다면 조향 계통 이상이거나 휠 정렬(얼라인먼트)이 흐트러진 경우가 많다. 특히 휠 정렬이 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타이어 편마모가 발생해 타이어 수명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심한 소음과 주행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휠 얼라인먼트 점검과 함께 타이어 상태를 확인 후 교체하는 것이 좋다.

동승자가 꼭 알아야 할 매너 5가지

좋은 마음으로 차에 태웠는데 동승자의 말도 안되는 매너에 마음 상할 때가 있다. 동승자라면 이런 행동을 주의하자.

■ 대시보드에 발 올리지 말자!

은근슬쩍 발이 슬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지 마라. 차 안에서 발을 둘 곳은 바닥매트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다리 길다고 발가락으로 앞유리에 자국이라도 남겨두면 다음에 내 자리는 없다는 생각하면 틀림없다.

더구나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면 사이드미러를 가려서 운전을 방해한다. 자칫 사고라도 난다면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발은 제자리에 두자.

■ 과자 부스러기 흘리지 말자!

시트 위에 과자 가루를 흘려서 부스럭부스럭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문에 과자부스러기까지 쫓겨 넣어 두었다면?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흘리지는 말자. 만약 흘렸다면 부스러기까지 다 주워 먹고 내린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먹을 땀 당연히 운전자도 췌기다. 그리고 과자를 집어 먹은 후 기름기 묻은 손으로 차량의 여기저기 만지지는 말자.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 안되면 그냥 외우자. 1. 부스러기 안 떨어지는 거로 먹는다. 2. 최대한 냄새 덜 나고 기름기 없는 거로 먹는다. 3. 운전자랑 같이 먹는다.

■ 잔소리는 참아줘!

'왜 아직도 주차를 그렇게 못해?' 라는 식의 동승자의 잔소리에 기분 좋을 차량 주인은 없다. 동승자가 자꾸 잔소리를 하면 중간에 내려서 걸어가고 하고 싶다.

떨쩍히 잘 가는 중에 '아악! 부딪힐 거 같아!' 하고 갑자기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 태우면 진짜 운전하기 힘들어진다. 앞에 있는 장애물



사진=shutterstock

보다 소리 지른 동승자 때문에 놀라서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운전자는 면허도 있고 귀도 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용히 알려줘도 잘 듣는다. 그러니 예쁜 말로 차분하게 말해주자. 물론 잔소리는 참아라. 충분히 믿고 기다려주면 누구나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

■ 탑승하자마자 잠들지 말자!

차에 타서 '자~ 출발!' 하자마자 바로 자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 수는 있지만 타자마자 대놓고 꿀잠 자지는 말자. 장거리 운전이거나 밥을 먹은 직후면 안 그래도 피곤한데 옆에서 쿨쿨 자면 운전하는 사람은 더 졸릴 수 있다. 그러다 둘 다 영원히 자게 되는 수가 있다.

동승석에 앉은 사람은 생각보다 할 일이 많다. 운전자가 졸지 않도록 말동무를 해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 하더라도 '내가 운전만 해주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만큼은 들지 않게 해주자. 동승하는 순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문은 살짝 열고 살짝 닫자!

자동차 문은 세계 열 필요도, 세계 닫을 필요도 없다. 힘 자랑하고 싶은 거면 헬스장으로 가라. 부주의하게 확확 문 열어서 '문콕' 유발하는 동승자도 비호감이다. 내릴 땐 옆 차와의 간격을 꼭 확인하자. 옆 차까지 피해를 주니 이걸 매너를 넘어서 필수다.

100% HAND WASH TRUCK / RV / CAR

왁스 · 스팀 세차 · 인테리어 청소

종목
TRUCK, RV, BUS, OVERSIZE, Fork LIFT, AUTO CARRIER, BOAT, ETC

서비스
WASH, STEAM, POLISH, WAX, INTERIOR DETAIL

특별 서비스
D.O.T. 서비스, PARKING SPOT(파킹장 임대)
AUTO DEALER(자동차 판매상) 문의환영
TRUCKING(운송 회사) 문의환영

KING TRUCK WASH

OPEN HOUR : MON-SAT 6am - 6pm

562.945.4826

mwleela@hotmail.com
www.kingtruckwash.com

**12500 E. Slauson Ave., G-2,
Santa Fe Springs, CA 90670**